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특별자치도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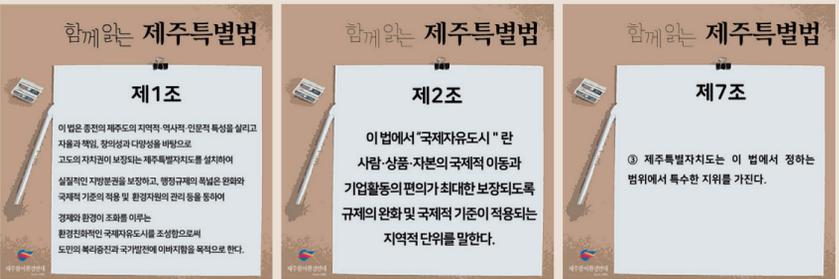
제주도에 살면서도 왜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었는지, 왜 제주도를 규정하는 특별법에 국제자유도시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단체가 1991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라는 초헌법적인 난개발법을 막기 위해서 제주의 시민사회가 똘똘 뭉친 것이 시초였다고 다들 알고 계시길 겁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름도 길지요?)'으로 바뀐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의미는 어렴풋이 짐작이 가는데, 갑자기 특별자치도는 왜 들어갔는지라는 의문이 들다가도 제주도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떨어져 있고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큰 나라들에서 자치구를 두어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을 찬찬히 읽어보는 순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고, 자치권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자치권한을 집중시키는 "특별"하지 않고 "기이"한 자치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국가라는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길고 이상한 이름의 제주특별법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빼앗아 도지사에게 집중시키고, 결국 자본유지를 통한 난개발의 대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국가를 위한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민권의 제한을 통해 얻는 국익이 정당할 것일까요?

우리 단체는 400조가 넘어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 있을까 하는 호기심마저 잠재우는 이 기이한 특별법을 시민들과 함께 뜯어보고자 매주 한 조씩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단체 계정에 올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산하여 보면 한주에 한 조만 분다고 치면 10년 정도를 봐야 합니다. 그래도 주권자의 입장에서 하나씩 곱씹으면서 읽다 보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생각들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이면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참여자치의 권리, 환경 보전에 절대적 해악으로 평가되고 있는 1,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어물쩍 이어지는 참사를 막아야겠습니다. 한 조만 한 조만 올릴 때마다 꼭꼭 씹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지요.



헌법으로 살펴본 교육의원제도

교육의 전문성 VS 민주주의

우리 헌법은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교육의원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참정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으로 보고 헌법 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의 조항을 인용하여 교원경력 5년 이상의 사람이라야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를 통해서만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해 봅시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 폐지되고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상임위로는 교육위원회에 당연한 소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은 교육의원 5명과 일반 도의원 4명 합하여 9명입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와 도정 질의 등을 보면 교육의원보다 일반 도의원들이 훨씬 적극적이고, 내용도 알차습니다. 정당 고은실 도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전국에서도 교육관련 최우수 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도 의원은 '스펙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라고 강조한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의 발언이 떠오릅니다. 도 의원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정치적으로 모색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법은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 산하에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경력에 교육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원들에게는 교육현장의 문제는 자기 눈의 티끌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주권자의 기본권을 지키고 확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본권은 공익을 위해 희생되어 왔지만, 점차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과거에는 인정될 수 있었지만, 반드시 교육의원 제도만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주권자의 기본권을 넘어서 수 없는 것입니다. 2017년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도의회 발전방안보고서에는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 이외에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원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다는 상위의 개념에 해당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활동 이모저모

5월

- 5월 7일 [드림타워 대응] 낮시간 교통량 모니터링
- 5월 8일 훼손오염 모니터링: 새별오름
- 5월 11일 활동가교육1: 인권의 이해
- 5월 13일 활동가교육2: 생태관광의 역할
- 5월 14일 활동가교육3: 애드보커시 방법론
- 5월 15일 활동가교육4: 제주지역 현안 알아보기
- 5월 17일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3강, 제주의 용천수
- 5월 18일 제2공항공행자지비상도민회의 연석회의 참석
- 5월 19일 전교조 범의노조 통보처분 취소촉구 기자회견
- 5월 20일 제2공항공행자지비상도민회의 집행위 회의
- 5월 21일 훼손오염 모니터링: 용눈이오름
- 5월 23일 [걷기모임] "머쳐앗숲길, 같이 걸을까?"
- 5월 24일 한덕 대덕산업 비대위 만남
- 5월 27일 [논평] 하수처리 용량 확대로 문제 해결할 수 없어, 행정시의 절수지도점검 면밀히 주시할 것

도의회 앞 교육의원 현수막 게시(6/15)



2년 전 우리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교육의원 선출 자격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우리 단체의 입장에 대해 도의회 측에 의견을 물어본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도의회 앞에 누군지도 모르는 교육의원이 아니라, 진정한 도민이 대표를 원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소신 있는 판단을 촉구합니다.

제2공항 예정 부지 숲골 조사 진행(6/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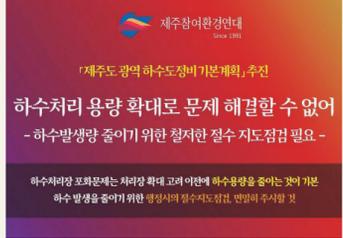
숲골은 땅의 숨구멍으로 빗물을 자연스레 지하로 빠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숲골 조사 결과 제주제2공항공행자지비상도민회의에서는 숲골 136곳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한 차례 더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숲골 찾는데 전념하였습니다. 인구 67만 작은 섬에 복수의 공항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 많은 숲골을 막는 위험까지 무릅쓰며 공항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드림타워 교통량 모니터링 및 회의(5/7, 5/29, 6/23, 6/26)



천혜의 자연 한라산이 어딜 가나 보이던 제주도였는데 이제는 드림타워가 어딜 가나 보입니다. 불쾌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드림타워의 문제점을 기록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통량 모니터링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원님들~ 드림타워 앞 도로 노면에 드림타워로 가는 방향과 명칭이 적혀 있더라고요. 사기업의 이름을 노면에 새겨주는 이 황당함을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우리단체의 문제 제기로 노면글씨가 사라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논평 발표(5/28)



이미 포화상태가 된 지 오래인 하수처리장을 두고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남발해왔던 도정이 이번에는 하수처리장을 더 늘리겠다고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년 원료를 목표로 하수처리시설을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2040년을 바라보며 지금의 불편을 감수하라는 걸까요? 개발 인허가를 더 늘릴 심산은 아닌 걸까요? 제주도정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제주 환경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훼손오염 모니터링] 용눈이오름(6/12)



제주도에서 탐방객이 많이 찾는 오름 중 하나인 용눈이오름. 오름이 인기가 많다는 건 그리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탐방객의 발길로 탐방 매트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훼손되었고, 확산송이

도 깨어지고 부서져 돌바닥이 흰히 다 드러나 있었어요. 시에서는 곧 긴급정비를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왜 화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요? 꾸준한 모니터링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원님들~ 드림타워 앞 도로 노면에 드림타워로 가는 방향과 명칭이 적혀 있더라고요. 사기업의 이름을 노면에 새겨주는 이 황당함을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우리단체의 문제 제기로 노면글씨가 사라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소소한 재능나눔] "평매듭 팔찌, 같이 만들래?"(6/11)



박성에 회원님과 함께 평매듭 팔찌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색의 실과 구슬을 고르는 재미도 있었답니다. 구슬 꿰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지만 완성된 팔찌를 보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뿌듯해하셨어요~ ~ 또 하고 싶다는 요청이 빗발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걷기모임] "머쳐앗숲길, 같이 걸을까?"(5/23)

숲길도 걷고, 데이터에 근거한 체지방 감량 걷기 방법도 배우는 깨알 재미 프로그램, "머쳐앗숲길, 같이 걸을까?"가 5월과 7월에 진행되었습니다. 나무 타기, 명상하기, 중심 잡기, 스트레칭 등 유익하고 재미난 활동에 더해, 맘을 내지 않고 걸어도 체지방이 감량되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며, 일주일에



180분씩 걷기로 참가자들이 서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4회가 더 남아있는 희소식을 전하며!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교육(6/16-18)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지난 6월엔 <변화를 위한 상상력과 행동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애드보커시(지지, 옹호)에 대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슈에 대한 접근법부터, 어떠한 활동이 우리의 이슈를 확산시키는 최적의 방법인지 고민해 나가는 시간이었는데요. 교육 마지막 시간엔 드림타워의 문제점을 점검시켜 캠페인을 구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알찬 강의를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우리 활동가들의 모습, 기대되지 않나요? + +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제주의 水修秀(5/17, 6/21)

생태안내자 심화교육이 어느덧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지하수, 용천수, 하수>를 주제로 교육생들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6월엔 (용천수)팀이, 7월엔 (지하수)팀이 기획/구성해 온 교육내용과 교구를 발표했습니다. 역시, 우리 쌤들은 교육이 필요치 않았던 걸까요? 깔끔한 발표와 철저한 준비로 2시간 동안 신나게 제주물에 대해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쌤들의 노력과 명망들이 제주물을 지켜나갈 씨앗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모두 힘팅! + +



제3강, 제주의 용천수 (박원배 연구원) | 조천읍 용천수 탐사 | 프로그램 기획 및 발표: (용천수 팀) | 프로그램 기획 및 발표: (지하수 팀)